

아직도 프랑스 와인만 고집하십니까?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세상은 넓고, 와인은 많다. 넓은 세상만큼 다 헤아리기도 힘든게 바로 와인인데 프랑스 와인만 바라보고 있기는 너무나 아쉽다.

특히 최근 몇 십년간 와인양조 기술이 몰라보게 발달하면서 매년 좋지 않은 해가 없다할 정도인데 국가별로도 그렇다. 포르투갈은 포트와인, 독일이라고 아이스와인만 떠올리다면 그야말로 구시대적이다. 전 세계 100대 와인에 한 두 병 이름을 올리는데 그간 와인 생산국으로는 변방으로 치부됐던 곳에서도 나라별로 100대 와인을 꼽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인 평론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임스 서클링이 올해 처음으로 '포르투갈의 100대 와인'을 선정해 내놨다. 지난 1년간 900종류 이상의 포르투갈 와인을 맛본 결과다.



(왼쪽부터) 니에푸르트 도루 로부스투스 2017 빈티지, 닥터 뷔르클린-울프 페히슈타인 2022 빈티지, 샤오 링 샤도네이 샹그릴라 홍포 2021 빈티지.



서클링은 "포르투갈 와인은 전반적으로 짝 짝 놀랄만큼 바뀌었다"며 "특히 도우로 벨리는 앞으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호평했다. 포르투갈 와인 1위에 오른 것은 포트와인이 아니었다. 니에푸르트 도루 로부스투스 2017년 빈티지다. 로부스투스는 도우로 지역에서 주정강화로 만들지 않은 최초의 와인이라는 기록도 있다. 지금은 니에푸르트에서 만들어진다. 일부 포도나무는 100년 이상 됐다. 편암 지질에 심어져 힘이 있고 산도

가 높으며, 탄닌 구조도 단단하다. 독일은 리슬링 와인이다. 닥터 뷔르클린-울프 페히슈타인 2022년 빈티지다. 무려 100점 만점을 받았다. 독일 와인 생산자 연합에서 분류한 등급 가운데 최상급에서도 단일 보도밭에서 만든 드라이한 리슬링이다. 미네랄 표현의 결자이란 평가가 나왔다. 서클링은 "2022년은 덥고 건조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의 집중력과 부실함 느낌의 미네랄 느낌을 갖춘 드라이 리슬링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며 "이 와인은 리슬링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전적인 새로운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슈냉블랑으로 유명했던 남아프리카에서는 이번엔 시라 품종의 와인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포르셀란베르크 스와트랜드 2021년 빈티지로 검은 과실과 허브, 후추, 철분 느낌이 복합적이며, 입안에 단단하면서도 섬세한 구조다. 그래도 슈냉블랑 명가답게 100위 와인 가운데 20개는 슈냉블랑 품종의 자리를 채웠다.

중국에서는 100대 와인을 선정한 이후 처음으로 1위에 화이트와인이 선정됐다. 샤오 링 샤도네이 샹그릴라 홍포 2021 빈티지다. 중국 운남성에 서도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인 샹그릴라 지역에서 만들었다. 신선한 청사과와 감귤류향에 적당한 산미와 매끄러운 질감이 잘 어우러지고, 짝 짝하다 느껴질 미네랄이 특징이다.

중국 와인의 품질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중국은 와인 소비와 생산 및 수입이 모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으로 감소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편집능력, 정보 과잉시대 조리 기본기”

편집은 무기다. 칼날의 날카로운 물성과 총알의 파괴력이 없다고 해서 무기가 아닌 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365일 24시간을 카메라에 전부 담아 편집자에게 가져다 주면, 그는 주변 인물의 인생을 갈기갈기 조각낸 뒤 이리저리 끼워 맞춰 그를 영웅으로도, 사회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로도 만들 수 있다. 편집이 무서운 이유다.

‘에디토리얼 씽킹’은 약 20년간 에디터로 일한 저자가 ‘편집자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에디토리얼 씽킹’을 ‘정보와 대상에서 의미와 메시지를 도출하고, 그것을 의도한 매체에 담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하고 구조화하는 일련의 사고방식’으로 정의한다. 에디터도 아닌 데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나요?

책에서 저자는 “스마트폰과 SNS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 기업, 개인, 사물 등 모든 것이 미디어가 됐고, 볼 거리가 넘쳐나면서 신문과 잡지는 손 꼽히는 사양 산업이 됐다. 불안과 무기력이 짙은 안개처럼 업계 전체를 덮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 잡지가 망해가는 게 아닌 세상이 온통 잡지화하는 걸로 보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정보와 맥락을 다루는 에디터라는 직업은 사라지기는커녕 다루는 일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만 갔다. 패션 잡지 단골 기사였던 스트리트 리얼 룩 콘텐츠는 ‘스타 일체어’가, 인테리어 잡들이 콘텐츠는 ‘오늘의 집’, 코스메틱 품평 콘텐츠는 ‘화해’가 서비스로 만들었고 포털 사이트는 아예 조인트 벤처로 잡지사를 차렸다.

저자는 “정확하게는 온 국민이 준 에디터가



에디토리얼 씽킹
최혜진 지음/티틀렉프레스

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SNS에 올릴 사진과 영상을 고르고 편집하고 바다 텍스트를 쓰면서 자기만의 해시태그를 정해 콘텐츠를 아카이브한다”며 “‘공급자 과잉의 시대’라는 사회적 변화 안에서 창조성 역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상품, 지식, 뉴스, 데이터, 콘텐츠 모두 현기증 날 정도로 넘쳐나는 세상이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다움이나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부터 기존 재료로 인 지적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 중요해진다”며 “에디토리얼 씽킹은 정보 과잉 시대의 조리 기본기 같은 것”이라고 강조한다.

의미의 밀도를 높여가고, 데이터를 이야기로 바꿔가며, 사실에서 통찰을 이끌어내는 편집자적 사고 방식에 관한 A to Z를 다룬 책.

224쪽, 2만원.
/김현정 기자 hik1@

깊은 생각의 비밀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넷플릭스 드라마·영화 등 사람들은 SNS와 OTT 플랫폼에서 온종일 방대한 정보를 빨아들인다. 콘텐츠에 일방적으로 노출됐을 때 우리의 뇌는 생각하기를 멈춘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궁금한 게 생기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유튜브에 검색해보거나 챗GPT에게 물어본다. 과거 인류는 지구 상에

서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였다. 초거대 AI 등장 후 인간은 사고를 기계에 외주화하고 머리 쓰는 일을 줄여나가고 있다. 책은 밥그릇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인 AI보다 우위에 있으려면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을 기르라고 조언한다. 272쪽, 1만8800원.

김태훈, 이윤형 지음/저널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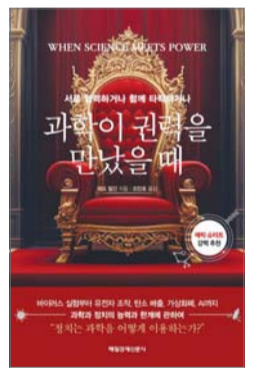


과학이 권력을 만났을 때

신종 전염병부터 지구 온난화까지 인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과학과 정치는 결탁해왔다. 국가는 전쟁과 경제 성장, 권력을 위해 과학의 신화를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과학과 정치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과학만으로는 스포츠에서 져든 구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원자력이 기후 변화의 좋은 대안인지 알 수 없다. 과학은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위협을 초래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과학은 정치의 지원이 필요하고, 정치는 과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정치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중요한 것에 관여한다. 책은 정책과 규제에 대한 결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과학과 정치가 조화를 이룰 방안을 제시한다. 440쪽, 2만3000원.

제프 말건 지음/조민호 옮김/매일경제신문사



괘씸한 정치인 되는 법

양극화(Polarization), 포퓰리즘(Populism), 탈진실(Post-truth) 이른바 3P 현상이 급부상하며 현실의 민주 정치를 위협하고 있다. 저자는 ‘정치’를 ‘관계, 연합, 영향력, 권력을 둘러싼 활동’으로 정의한다. 고로 세상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시민의 동의를 얻어내고 상대편과 합의를 끌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정치인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며 역할과 직책을 똑바로 인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일에 충실히 복무할 것을 강조한다. “정치인들은 세상의 많은 중요한 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늘 겸손하고 친절하고 성실하라. 이것이 모든 정치인에 대한 나의 희망이자 조언이다” 200쪽, 1만7500원.

브라이언 C. 헤거티 지음/박수형 옮김/서해문집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日서 전복 ‘11명 탑승’ 韓선박 수색 이틀째… 1명 추가 발견, 1명 실종 /사진 뉴시스
▲EU 외교수장, 러 동결 자산 기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공식 제안

▲美 “안보리에 가자 ‘즉시휴전 촉구’ 결의안 제출… 휴전협상 입장차 좁혀”
▲“일본은행 추가 금리 인상 ‘7월·10월’론 부상… 언저 주시”



▲호주, 영국과 방위·안보협력 협정 체결… “중국 대두 견제” /사진 뉴시스
▲美인태사령관 “중국,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완료할 것”